나의 슬픈 욕망 기계[1)]

안녕 여러분 나는 이 비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투어에 나서게 될 텐데요, 멀미가 나거나 아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즉시 내게 알려줘요.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내가 알게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 원래 꿈은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자연사한 것들을 전시해두는 박물관인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다들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투어의 목적은 당신의 본 목적을 잊는데 있습니다.

⁂

내 직업은 조각가다
주로 나무를 깎아 사람을 만들거나 사람을 깎아 나무를 만드는
일을 한다

두 가지 작업에는 동일한 도구가 사용된다
유념해야할 것은 각도와 스킬 그리고
반복 작업 이후 뇌 주름을 고르는 시간이다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을 깎아 사람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나무가 되고자 재료인에 자원한 것이었는데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 후 도끼로 자신의 몸을 반 동강 내 자살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것까지가 조각가의 일이다

지난번에 깎은 나무는 머리가 막 만들어지자 자신이 사람일리 없다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를 목청껏 흉내 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에게 베인 그의 가족이 모닥불 속에서 따뜻하게 타들어가는 소리였다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너무 따뜻해서
깜빡 졸았다 깨어나 보니 막 만들어진 그의 심장에 내가 구멍을 뚫어놓았다
드릴은 늘 조심해서 다뤄야할 도구다

---

1) 김혜순, 『불쌍한 사랑기계』(1997)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안티 오이디푸스』(1972), "1장 욕망 기계들"

그것을 치우는 것까지가 조각가의 일이다

지난번에 깎은 사람은 문득 나무가 되는 것이 두려워졌는지
내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무성한 가지와 잎을 단 채
사람의 다리를 움직여 달아났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수에 빠졌다
여름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와 나무도 사람도 아닌 자의 발버둥과 철썩 철썩 경쾌한 물 마찰음과 새로 들어오는 나무 그리고 사람의 냄새

조각가의 일이란 무엇인가

자살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는 어느 밤 한 나무의 흉통부터 깎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깎고 깎아 나무 조각이 발밑에 수북이 쌓이면 그것을 심장에 가깝게 껴안고서 벽난로에 하나씩 던져 넣었다 언젠가부터 활활 타는 불을 보면 팔이 저릿저릿하다 더 많은 나무를 깎아야겠다 더 많은 장작을 만들어야겠다고

새벽이 밝아올 때쯤 나는 그 나무의 흉통을 다 깎았다 나는 그의 상반신에 손을 얹어보았는데 아주 따뜻했다 활활 타는 어느 불보다도 따뜻했다 그의 심장이 안쪽에서 타닥 타닥 타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깎아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무의 머리와 사람의 몸통과 파쇄된 종이처럼 얇고 긴 여러 다리를 가진 그와 함께 나는 조각가의 작업실을 떠났다

*

근육의 기억만으로도 멀리갈 수 있다
나는 잠든 채 어느 박물관까지 걸어간 적도 있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가본 적 없는 곳도 갈 수 있을까

조각가가 나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든 몇 개의 다리들
그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만든 팔로 내가 걷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가 나를 만들다 말았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졌고
계단이 아주 많은 박물관에서 나는 마음껏 걸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심장으로 냄새를 맡았다

야외 전시관을 걷다가 무언가를 밟았다 차갑고 딱딱하지만 뭉개지는
조각가의 숨처럼 부드러운

슬픔처럼 쩍쩍 달라붙는

깎이다 만 다리들은 끝이 날카롭고
높은 곳에 잠긴 문도 열 수 있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배상할 돈을 꺼낼 주머니와 사과를 위한 입이 없었으므로
무엇보다 속이 울렁거렸으므로 나는 서둘러 오른 계단을 도로 내려왔다

근육의 기억만으로도 멀리 갈 수 있다지만 나는
더는 잠이 오지 않는다

심겨 있자

그가 물을 주러 올 것이다

⁂

뜨거운 물을 틀어두고 구겨진 옷을 걸어 놓으면 수증기 때문에 옷이 빳빳하게 펴진다는 얘기 들었어 수건걸이에 나를 걸었어 옷걸이 끼워서
새것처럼 될까 해서

단체 필라테스 교실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같은 동작을 다르게 반복하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도 어떤 표정을 지어도 누구도 뚫어져라 보는 법이 없는 매트 위

넌 왜 사람이 되다가 말았니

난 왜 사람이 되다가 말았을까

보여?

빳빳해지고 있어?

✳

이건 정말 심하네 어떻게 사람을 아니 나무를, 이렇게 깎다가 말 수가 있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금방 다시 깎아서 나무로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

싫어!

당신은 지금 장작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타올라 볼 거예요

활활

타닥 타닥

재가 되어라

⁜

안녕 여러분 나는

내가

거의 없어

요. 다들 잊 어

댄스 위드 유어 새드니스 Dance with your sadness

도무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작은 동네에서 나는 자라났다 가슴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일요일의 과수원을 기다렸다 사과 박스를 트렁크와 뒷좌석에 꽉 꽉 채워 담을 동안 겉이 잘 구분되지 않는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과수원집 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도 풀숲의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풀썩 풀숲 눕지 몹시 덥다 흰 원피스를 펄럭이며 다리를 쳐들어도 풀숲보다 짧았을 때 흔들흔들 흔들었다 풀숲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울 거야 아무 것도 짓지 않고 풀숲처럼 살 거야…

이건 내 유령적 자세 연마에 대한 기록이다

여자만 있는 상에 둘러 앉아 밥 먹을 때 어른 여자들은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내 다리를 밥 먹는 내내 찰싹 때렸다 얼얼하도록 찰싹 찰싹 너무 아파서 눈물을 콩자반 위에 뚝뚝 떨구며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던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몰랐던 것이다 이미 불행한 사람만이 복 나갈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향냄새 나는 커다란 제기 같은 그런 둥근 상에 허벅지에 똑같은 찰싹 자국이 붉게 난 여자들이 둘러 앉아 밥을 먹는다

나는 레비스트로스의 과학자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는 내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성장 배경과 그에서 비롯된 야성적 사고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향냄새가 싫어서 다리를 건넌 다음 다리를 톱으로 잘라 끊고 도시에 왔다 여기엔 그늘이 많다 몹시 춥다 보일러 돈 많이 드니까 몸 많이 쓰자 사람은 자고로 웃는 게 예쁜 법 나중에는 웃는 사진 프린트해서 라이터로 다 지져버렸다 내가 너 죽인 것 같았다 페가 시원했다 밥 안 먹어도 배불렀다 식탁에 앉아 사람은 깨작깨작 처먹지 말라고 젓가락을 던졌다 야, 아무데도 앉지 마 하루 종일 정신병자처럼 다리 떠네 에이 씹, 방에 들어가면 먹은 것도 없는데 피부가 짓무를 때까지 손을 땄다 무릎을 꿇고 피가 튄 바닥을 닦았다

우리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객관화한다

그는 주로 사무실에서 혼자 체스를 둔다 나는 공중유령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공중유령은 보통 둥글고 납작한 접시가 뒤집힌 모양을 하고 있는 전구에 매달려 산다
사람들은 유령의 눈 코 입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목구비가 없다

내가 처음 공중유령을 발견했을 때 녀석은 태연한 장식품처럼 과학자 사무실 화장실의 어두운 조명에 매달려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 나는 레비스트로스가 열대우림에 사는 어느 부족에게 받아온 파파야잎 비스킷을 주며 공중유령과 라포를 형성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객관화하는 일 외에
나는 가끔씩 내 유령적 자세의 역사를 공중유령에게 들려주었다

독일어 수업을 듣는다고 말하고 절에 가서 백팔 배를 했다 향을 다섯 개씩 사서 피우고 복 들어오게 해달라고 다리 다시는 안 떨 테니까 그 새끼 저 새끼 복 모조리 긁어모아 내게 달라고 눈을 하도 세게 감아서 꿇은 무릎 펴고 일어서며 눈 뜨면 한동안 앞이 까맣고 흐리고 좋았다 눈동자에는 혼이 깃든다 전부 도려내야 한다

한 번은 공중유령이 파파야잎 비스킷을 먹다 크게 체해서 손을 따 준 적이 있었다

하얗고 얇고 천처럼 물결로 주름지는 피부 투명해서 내부의 진한 레몬 색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공중유령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몹시 부드러운 왜인지 알 것 같은 질감

공중유령의 어디를 찔러도 고인 피가 검게 터지지 않았고 다만 몹시

따뜻했다

Schwein Hundesohn Verdammt Wichser Halt die Fresse Halt dein Maul Halt die Klappe 슈바인 훈데소온 페어담트 빅서 할트 디 프훼제 할트 다인 마울 할트 디 클라페 개돼지 개새끼 씨발 씨발놈 닥쳐 닥쳐 닥쳐

포털사이트에 독일어 욕을 검색해 돌아가는 길에 몇 번 중얼중얼 따라한 다음 너한테 오늘 배운 말이라고 웃으면서 말해주면 듣기 좋다고 너는 발기하고 다 벗고 누워서 그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럼 나는 깔깔 웃으면서 또 해주고 너는 슈바인 훈데소온 디글디글 타들어가는 얼굴로 따라하고 참 좋았다 앞이 까맣고 흐렸다

레비스트로스의 체스 말은 파파야잎을 둥글게 말아 세 개의 점을 찍은 것으로

아주 착한 사람처럼 생겼다

가끔 나는 그의 연구를 돕기도 했다 한 장의 큰 그림을 비슷한 크기의 종이에 베껴 그리는 것이었다

노랑 연두 초록 녹황 청록에 이르는 이끼 풀 군락과 그 위로 한 다발씩만 자란 보라 하늘 다홍 주황의 술 없는 꽃들 그 사이에서 높이 자란 가시 다 뽑힌 밝고 어두운 초록빛의 선인장들 팔을 아래위로 뻗은 채 눈을 감고 우는 선인장들 사이사이 그들을 따라 한쪽 다리를 들고 물구나무를 서고 다리를 쳐들고 무릎 꿇고 흉부에 손을 얹고 안으로 말려들어가다 만 자세로 우는 사람들

레비스트로스는 책상에 앉아 체스 말을 옮기며 오랫동안 그 그림의 제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집중하고 있을 때 몰래 사람들의 손가락에 침을 한 번씩 찔렀다

공중유령은

지구본에서 아무 나라나 찍어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게 취미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건 연구 가설과는 어긋나는 일이었고

느끼고 싶어요

나는 레비스트로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파울! 파울! 늦은 밤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이 외쳤다 심판도 외치고 선수들도 외치고 관중들도 외치고 중계석에서도 외치고 너도 외쳤다 저건 내 이름이야 저게 아니면 안 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물건에 썼다 paul 폴 이라고 읽어도 좋았다 파울 쓸모없고 폴 떨어진다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이
스스로 자명한 진실을 발견하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자라고 믿었지만
사무실에 앉아 옥수수 뿌리처럼 빈약한 수염을 매만지며
파파야잎 체스 말을 이쪽과 저쪽에서 옮기거나
내가 입사한 이후에만 백 일곱 번 베껴 그려진 하나의 그림을 한나절 내내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는 영락없는 무언가의 원주민이었다

거기서 태어난 것 같았다

아메리카에서 같은 쇼를 봤지 돈이 없어서 엉터리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의 손을 잡고 플라스틱 칼을 들고 반쯤 무너져 먼지 이는 반원 극장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 나가면서 잊지 말아요 우우 잊지 말아요 불렀지

내가 레비스트로스의 과학자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공간이 제공되고, 급여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넌 내가 지어낸 외국 이야기를 어느 날은 좋아하고 어느 날은 싫어했는데 그 노래는 특히 너의 분노를 샀다 많은 물건이 서로 부딪쳐 가감 없이 오케스트라를 흉내 내듯이 멋진 음표들 하나의 음악이 되어 깨어졌다 잊어! 잊어! 너는 짧지만 마음을 후려치는 가사를 짓는 법을 알았다

공중유령은 흔들흔들 하며 나에게도 함께 움직여볼 것을 제안했다
나는 공중유령처럼 서서 눈을 감고 왼쪽으로 무한대를 그리며 흔들흔들 오른쪽으로 왼쪽 무한대를 풀며 흔들흔들

할머니는 제사 끝나고 청주를 마시고 나를 붉은 허벅지에 눕혀 재우면서 사람 위를 넘어 다니면 죽음이 그 사람 냄새를 맡고 자리를 깐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솔솔 잠에 빠져 들었다 할머니는 한 마디를 덧붙였는데 아마 내가 잠든 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결혼하고부터 자는 할아버지 위를 백 여덟 번 씩 넘어 다녔다고 했다

우는 선인장과 우는 사람들 불균형과 자세

다리를 떨다 보니 팔이 떨리고
팔을 떨다 보니 머리가 떨리고
다리 팔 머리 떨다 보니 온몸이 떨리고
온몸을 떨다 보니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흔들흔들 무겁지 않아 무섭지 않아
좋아요

나는 마침내 그 그림에 어울리는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고
레비스트로스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내가 아는 얼굴을 벗어두고 귀퉁이가 닳아 찢어진 가죽 소파에 누워 다리를 공중에 쳐들고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

그의 체스 말들은 푸른 체스판 위에서 느릿느릿 춤을

이 일과 저 일이 반드시 관련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과학자와 샤머니스트 어느 쪽에 가까울까

잊지 말아요 우우

잊어!

잊지 말아요 우우

잊어!

폴과 파울이 마주보고 서서

나만이 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

* 레비스트로스는 대표적인 구조주의 학자로 인간이 사회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 보편타당한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

누구도 나를 찾아내지 못할 때에도

*빌어먹을 나만은 나를 꼭 찾아냈다***

공중유령이 흔들흔들 걸어 들어와 하얗고 얇고 천처럼 물결로 주름지는 투명한 피부를 들춘다 그 속에는 알록달록한 이끼 풀 군락과 술 없는 꽃들 사이사이 가시가 다 뽑힌 선인장들 눈 감은 채 몸 흔드는 선인장들 사이 그들을 따라 팔다리를 휘저으며 말려들어가다 만 자세로 우는

폴과 파울들

춤을 추는

폴과 파울들

붉은 허벅지의 폴과 파울이 눈을 감고 하얀 원피스 안으로 사라진다

이건 내 유령적 자세 연마에 대한 기록으로, <유령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출판되어 유통되었고 나의 바람대로 아무도 찾지 못했다

는다. 레비스트로스는 원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마술적, 주술적 사고방식은 자연을 기초로 전개되고 반복된 지속적 관찰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인 '야성적 사고'라고 하였다.

** "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다.", 한나 아렌트,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안과 바깥과 불가능

티브이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벌어지는 일들보다 미신을 믿는 편이 좋다. 너는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고 있다. 다진 마늘을 사라니까, 말하면 너는 직접 다지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말한다. 열어둔 창 너머로 마당에서 졸고 있는 게으른 고양이가 보인다. 자꾸 와서 밥을 주었더니 가족이 되었다. 나만의 생각이다.

이제 티브이에서는 천문학자와 무당과 아나운서가 둘러 앉아 지구 멸망에 대해 좌담을 나누고 있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은 제법 즐거워 보인다. 너는 여전히 마늘을 다진다. 코를 훌쩍이면서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빛이 창만큼 넓게 엎질러지는데 네가 있는 부엌은 여전히 어둡다.

지구가 드디어 멸망한대

식칼을 눕혀 마늘을 꼼꼼히 다지는 일에 몰두한 너를 보며 말한다. 이대로 죽었다 천년 후에 발견되면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소파라는 것에 누워 있던 인간입니다.
이것은 마늘이라는 것을 다지다 죽은 인간입니다.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해야지

큐레이터의 정숙한 말투를 따라하며 웃다가 네 말에 고개를 돌리면 너는 눈을 비비고 있다. 마늘 만진 손으로 눈 만지면 더 매워. 말하려다 그만 둔다.

티브이에서는 여전히 천문학자와 무당과 아나운서가 둘러 앉아 지구의 단면 사진을 보며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다. 밖은 광장으로 향하는 발소리로 소란스럽다.

멈춘 것들을 두고 세상이 계속된다는 것이 멸망과 어느 면에서 다른지 나는 모르고
신은 자꾸 말을 번복한다.

게으른 고양이는 잠에서 깨어나 느릿느릿 대문을 나서고 있다.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는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어찌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대한 미신 속에서

그럼에도 죽거나 살고 싶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너는 계속해서 마늘을 다진다.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는 냉장고

부엌 조리대에 쌓아둔 다진 마늘들이 질서 없이 썩어가고 있다.

차이와 반복5)

가진 양털을 몽땅 도둑맞은 양치기의 이야기를 읽고 덜컥 겁이 난 나는 기르던 양을 내다 버렸다. 양이 없으면 양털을 도둑맞을 일도 없을 것이다. 양을 기르던 들판이 텅 비어서 나는 팔 다리를 사방으로 쭉 뻗거나 모로 눕거나 이쪽에서 저쪽까지 굴러가 볼 수도 있다. 들판은 위도 아래도 푸르다. 이쪽과 저쪽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들판은 고정할 수 없는 액체. 양이 있었더라면. 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풀을 다 뜯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내다버린 양의 습성이다. 하지만 이 들판은 계속해서 푸르고 푸르지 않은 것은 들판이 아니고. 풀은 뜯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라나거나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뜯어진 적이 없이

양이 있던 자리를 나는 알 수 없지만 다 틀린 확신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들판에 있다. 양털을 도둑맞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서 나는 몸을 웅크리고 토끼의 흉내를 낸다. 입술 밖으로 앞니를 내밀고 푸른 들판의 어디쯤을 갉는 시늉을 한다. 당근을 먹으면 당근색 혀를 내밀고 상추를 먹으면 상추색 혀를 내미는 토끼와 같이 턱으로 허공을 휘젓다 가끔 푸른 혀를 내밀면 된다. 그러다 질리면 나는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달려가 이리저리 눕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구르고 토끼는 토끼의 일을 한다. 위도 아래도 푸른 들판에서. 풀을 갉아먹으려다 불현 듯 입이 젖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러다 토끼의 털을 몽땅 도둑맞아도 괜찮다.

식사 중에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은 성실히 국을 떠먹는 시늉을 하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나는 들판 생각에 식사에는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양은 말했다. 진짜 양털인지 가짜 양털인지가 뭐가 중요하니 너한테 양털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잘못 묶은 원피스 끈이 팔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몸을 감고 점점 엉켰다. 내 이야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토끼는 계산을 하겠다고 일어서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들판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이상한 가게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도 모르는 식사가 식어가는 동안 몸에 엉킨 원피스 끈을 잡아당기느라 네 발로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양털을 몽땅 도둑맞은 양치기에게 사실 양은 한 마리도 없었다
들판 따위 어떻게 되어버려도

분실물을 찾았다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올 편지가 없는데도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들판으로 돌아갔다 네 발로
사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가 푸른 혀를 내밀었다가 했다

---

5) 질 들뢰즈(1968)

도둑맞은 것은 실은 전혀 다른 것인데 누구도 대답이 없고
사람으로도 양으로도 푸른 혀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소리로 우는 것에만 점점 탁월해졌다

픽셀 유동화

지옥에 대해 쓰기로 약속해서 나는 글을 시작한다. 막 3학년이 된 학원 남자아이들은 욕처럼 들릴만한 것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c번의 답을 말하기 위해 아이들은 빨리 발음한다. 씨발. 씨발. 아이들은 마구 웃고 바삐 말한다. 씨발. 씨발.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씨발. 씨발. 일단 말한다. 개새끼라는 말을 좋아해서 아이들은 베이비 도그 말한다. 강아지가 핫도그가 되는 것이 아이들은 여간 즐겁다. 보신탕이 영어로 핫도그인줄 알고 아이들은 낄낄댄다. 아이들은 이럴 때 누구보다 충실하다.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피그 쓴다. 딜리셔스. 쓴다.

나에게도 선생님은 있었다. 지친 얼굴의 머리가 짧은 구부정한 자세의. 내가 베이비 퍼슨이었을 때 학원 남자아이들은 존나. 말했다. 존나 빨리 뛰어 학원에 왔다고 말했다. 존나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문제 존나. 어렵다. 말하고 나의 선생님은 듣다가 존나. 그런 것은 너희들이 써서는 안되는 말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존나. 화가 나서 말했다. 존나. 그것은 좆이 난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미 좆이 있다. 존나. 그런 말을 너희들이 쓴다는 것은 너희들의 좆. 위에 또 다른 좆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좆빠지게. 뛰어왔다고 말해야 한다. 좆빠지게. 그러나 너희들은 좆이 빠진 적이 없다. 좆이. 빠지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앞으로 가슴이 자라날 것이다. 존나. 그런 말을 쓰며.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립스틱을 칠하고 거울을 보아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아라. 나의 선생님은 왜 화를 냈을까. 왜 존나. 화를 냈을까. 나는 이미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을 쓰고 무엇보다 좆이 없으니까 아 선생님 존나. 화났네. 생각했다.

어엿한 퍼슨이 다 되었을 때 어느 날 내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좆됐다. 나는 그런 말을 써도 된다. 나는 좆이 없고 좆이 될 일도 없으니까 좆된다 좆된다 말해도 결코 좆이 될 수 없으니까 좆됐다고 말하면서 나는 약속 장소로 간다. 지하철을 탄 기억도 없는데 2번 출구에서 내가 뛰쳐나온다.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면 좆됐다는 여자들이 한가득 있다. 사진을 가지러 왔다는데 사진은 없고 발신인도 없고 좆된 여자만 계속 계속 내린 적도 없는 2번 출구에서 튀어 나온다. 무수한 좆된 여자들과 좆됐네요. 두런두런 얘기를 나눈다. 우리는 좆이 없고 좆이 될 일도 없고 결코 좆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좆됐네요. 바글바글 모여서 합창한다. 좆됐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걷는다. 댐에 갇힌 물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막 걷다보면 4번 출구에도 도착하고 7번 출구에도 도착하고 그러는 동안 전신주에서 쓰레기통에서 침이 굳은 벽에서 부분 부분 조각난 사진들을 발견한다. 줍는다. 하나씩 붙여 봐요. 누군가 말해서 사거리를 점거한다. 난폭한 드라이버들은 쌍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친다. 좆된 여자들이 다 막고 서있으니까 드라이버들은 그냥 빵 빵 클락션만 울려댄다.

사진 조각이 무수히 많아서 7시간 24분이나 붙였지 뭡니까. 어머 밤이 다 되었겠군요. 아뇨, 밤이 오지 않는 설정이죠. 사진을 확인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

그래서 누구던가요. 그 사진은 뭐던가요. 그게, 다 붙이고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가 베이비 퍼슨이었을 때 치마를 입고 교실에 앉아 있는 베이비 퍼슨들을 보고 머리 벗겨진 남교사는 요새 애들은 다 얼굴은 달걀귀신같이 허옇고 입술은 쥐잡아 먹은 듯 빨개서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간다고 말했다. 틈만 나면 그런 얘길 했다.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 불렀다. 얘 누구야 얘 저기아 애 거기야 얘...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복도에 교실에 운동장에 널브러져 쏟아져 있던 스커트 입은 베이비 퍼슨들이 당신을 일제히 바라보았답니다.

왜요?

왜 부르시는데요?

당신은 놀라 모든 것을 잊어버렸죠. 당신의 기억은 기절했죠.

단 하나의 얼굴이 된 하나의 사진이 거대한 콜라주로 재현되었을 때도 사거리는 잠깐 동안 고요하고 오랫동안 시끄러웠다. 씨팔! *(나의 선생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씨발은 씨 받는다는 뜻이고 씨팔은 씨 판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응당 씨발이라고 했어야한다고, 팔 씨가 없으니까 씨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존나. 화를 내셨을 것이다. 혹은)*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좆된 여자들이 비명 질렀다. 당신이 왜 비명을 질러? 이건 내 사진인데! 나야말로 좆됐잖아! 뭐라는 겁니까. 내 얼굴 똑바로 보세요. 이건.. 여자들이 막 화를 내다가 고개를 들면 너무 놀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자들의 기억은 기절한다. 무수한 한 여자가 사거리를 점거한다. 난폭한 드라이버들은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그 기억은 돌이 된다. 딱딱한 돌이 되어서 기억의 뒷부분으로 사라진다. 그런 일은 평생 기억 안 난다. 그야말로 데드다. 데드 메모리다.

내가 이 기절한 기억을 찾게 된 것은 며칠 전의 일이었다. 약속이 있어서 나는 가방을 메고 나왔다. 나는 약속 장소를 알았고 집에서 나와 걸었다. 세븐일레븐을 지나치고 초코슈 파는 카페를 지나치고 철문을 지나서 나무가 대충 심겨있는 언덕도 지났고 문화세계의 변혁이라는 알 수가 없는 소릴 해대는 엄청 큰 비석도 지나서 펄럭이는 현수막 소리를 듣고 옆 정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보다가

우두커니

어?

깜짝 놀라서 발이 안 떨어진다. 쟤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도플갱어를 마주치면 죽는다는데.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분명 1등이었는데. 정자에 앉아있는 도플갱어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다.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다시 걷는다. 뒤를 돌아봐도 도플갱어는 그대로이다. 어딜 보는지도 모르겠다. 휴우 노 프라블럼. 생각하자마자 이번엔 길가에 서 있는 쟤가 있다. 뒤 돌아보면 정자에 앉은 쟤는 그대로인데 어디서 쟤는 또 나타났는가. 이건 도플갱어가 아니로군. 이건 쏘 시리어스 하군. 다시 지나치면 문 닫힌 술집이 즐비한 골목에 하나 담배 피러 멈춘 공원에 하나 쟤들이 자꾸 불쑥 불쑥 나타난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다. 와, 나는 분신술의 귀재구나! 분신을 자꾸 불러내느라 나는 약속 장소를 잊어버린다. 어떻게 해야 내가 쟤를 분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약속이 있고 근데 누구랑 어디서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지 잊어버려서 문제다. 다시 확인 하자. 가방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자. 가방을 들고 나왔으니 가방은 나름의 쓸모가 있을 것이다. 가방을

지이익

지이익

지이익

지지직

연다

이럴 때는 뭔가 다른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아 가방 좀 정리하지 진짜 존나. 더럽네. 파우치에서 틴트가 새서 가방이 막 이리저리 붉어졌다. 씨팔 진짜. 붉은색이 막 묻은 핸드폰을 꺼내서 켠다. 어. 메시지가

내 앞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어딘가 익숙한 2번 출구에서 튀어나왔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아니 내 사진을 갖고 있다는 미치광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내도 자꾸 전송에 실패한다잖아.

그래서 걸었다.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보일 것 같은 골목에 서서 담배를 꺼내다가 나는 눈이 마주친다. 아이 씹.. 이거 어떻게 못 멈추나,

엄마 나 자꾸 분신술을 해. 편지가 오고. 약속 장소 까먹고.

엄마는 드디어 내가 어엿한 워먼이 됐다고 좋아했다.

좋아했나?

약속대로 지옥에 대해 쓰려면 일단 퇴근을 해야겠지. 그러려면 일단 막 몇 학년이 된 남자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 프러그 이즈 그린 컬러. 프러그는 자기 메이트를 찾으려고 운단다. 그들의 보컬 색스에서 소리를 증폭시킨단다. 색스. 색스.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는다. 덜 여문 이빨을 막 부딪치면서 더 세게 누가 누가 더 된소리 잘 내나 겨루면서 색스. 색스. 선생님 주머니는 영어로 색스죠 색스. 아니. 색 이고 주머니가 여러 개일 때 색스가 된단다. 너희들이 메고 다니는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가방 이름도 힙색이야. 허리춤에 차는 주머니 가방이라 힙색이야. 그럼 힙색이 여러개면 힙색스네. 힙색스. 아...

아 나 또 분신술 쓴다

학원창문에커튼처럼걸려있다정수기밑에서입벌리고물은쏟아지고막넘쳐흐른다바닥에엎어져있다애들이밟고지나다니는카페트같이움찔거리지도않고늘어져서창밖에는정차한차보닛위에앉거나걸쳐있고싱크홀에반쯤구겨진채있다가건물옥상에서제자리뛰기하거나버스정류장에기어올라갔다가내려왔다가

곧
선로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일다시일부터십다시사까지지하철문밖에네발로찰싹붙어서존나.
소리를지르는쟤들

여자화장실 뿌옇게 물 때 묻은 거울 앞에서 거울을 가만히 보라고. 치마 입고 좆난다 좆난다 하면서 가만히 보아라 자라나는 가슴을 보아라 너의 붉어지는 입술, 너의 얼굴을 가만히 보아라

저 선생님 표정 기억났어요
선생님 알았던 거죠? 우리들이 선생님 분신인 걸 알았던 거죠?

씨발! 개구리처럼 소리 질렀는데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이라 나의 베이비 보이 제자들은 듣지 못한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자의 사진을 가졌다고 편지 보내는 남자가 되세요
기술의 발달로 여자의 사진을 가졌다고 메시지 보내는 남자가 되세요
기술의 급진적 발달로 여자의 사진을 만드는 남자가 되세요

지옥에 대해 쓰기로 약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체 누구랑 약속했는지 잊어버렸다니까. 글쓰기 모임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 여자들이. 아 좆됐네. 이런다. 기절한 기억을 주위에 두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다 보면 밖에서는 난폭한 드라이버가 야 이 씨발년아! 소리를 질러대고 그땐 누구도 말이 없어진다.
열렬히 같은 곳을 바라본다.

선생님께,
더 지니어스 오브 분신술 드림.

; 다 카포